



전북대 치대 17기 졸업생, 모교에 4천만원 기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17기 졸업생 일동이 치과대학 발전과 후학 양성에 써달라며 4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졸업 20주년을 맞아 모교에 뜻깊은 일을 해보자고 마음을 모아 33명이 참여해 기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 기금은 치과대학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장학사업 등에 소중하게 쓰일 예정이다. 김경일 치대 동창회 재무이사(17기)는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다른 곳에서 일하면서도 모교와 후배들에 대한 애정을 항상 간직하고 있었다"면서 "후배들이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 훌륭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소방서, 운봉119지역대 청사 이전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운봉119지역대 청사가 완공되어 지난 5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운봉119지역대는 1993년 준공한 건물로 시설이 노후되고 부지가 협소해 소방인력과 장비를 유지·관리하기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민에게 질 좋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신축청사는 사업비 약 6억원을 들여 운봉읍 동천리 500-7에 연면적 288㎡, 지상1층 규모로 작년 9월부터 약 4개월간의 진행되었고, 소방공무원 9명이 교대 근무하며 화재 진압과 구급업무를 맡는다. 백성기 소방서장은 "소방서비스 제공 편중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전한 만큼 향후 지역민을 위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사랑장학재단, 5개년 계획 추진

(재)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은 오는 2026년까지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진안군민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인재 양성의 요람이자 지역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해 이번 장기 계획에 들어간다. 이는 재단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장학금지급, 해외연수지원, 국가자격증 취득지원 등 장학사업의 범위와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며, 급변하는 경제상황 속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학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장학기금 증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2003년 12월 설립된 후 2021년까지 적립된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기금은 약 74억원이다. 특히 지난해 후원금액은 전년대비 57%(7,800만원) 증가된 1억8300만원의 기금을 후원받는 등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재단은 장학기금 100억원 달성을 위해 5년간 군 출연금 15억, 후원금 등 11억으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며 목표달성을 위해 나아갈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체육회, 인권 친화 체육 환경 조성 매진

신문고 형식 '소리함' 설치·인권교육·상담 등 실시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가 인권 친화적인 체육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섰다. 6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올해 폭력을 완벽히 추방하는 등 체육계 체질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켜 인권 확립 및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다. 이에 체육 현장에서의 (성)폭력과 폭언, 가혹·갑질 행위 등의 부정·불법적인 행위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스포츠인권익센터를 더욱 활용하는 한편 소통 창구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니고 싶은 직장, 즐겁고 활기찬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임직원 간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선수(팀)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인권교육 및 상담도 진행한다. 특히 신문고 형식의 '소리함'을 회관 내에 설치해 각종 고충 및 상담도 신청 받는다. 소리함은 선수와 지도자 등 도내 모든 체육인들을 비롯해 체육회 직원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제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스포츠과학센터가 상담, 신상 보호 및 비밀이 보장된다. /장은성 기자

무주군 곳곳서 이어지는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무주군에 추운 겨울을 맞아 각계각층에서 이웃사랑 실천이 계속되고 있다. 부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송영근 위원장이 6일 오전 무주군을 찾아 추운 겨울을 맞는 무주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서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송 위원장은 "추운겨울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 성금을 마련했다"면서 "사회적 책임과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무풍면 청년회 손대현 회장과 우리농기계 오명석 대표가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각각 장학금 1백만 원을 전달했다. 손대현 회장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교 재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반디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의 노고에 도움이 되고자 장학금을 기탁한다"며 "무주의 중심인 청년회에서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에서 동참했다"고 말했다. 무풍면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농기계의 오명석 대표는 "무



풍면 청년회의 회원이기도 하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자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기탁한다"고 전했다. 또 (유)남양산업 허상석 대표는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고 무주 인재들이 마음껏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2백만 원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입주자 4세대 모집

진안군은 오는 24일까지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재형 가족농원 입주자 4세대를 모집한다. 체재형 가족농원은 진안으로의 귀농을 유도하여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체재동 주택 8동(원룸형 4동·투룸형 2동·복층형 2동), 교육동 1동, 시범포장(3,700㎡)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입주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30세 이상이어야하며, 진안에 귀농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2인 가족 이상인 세대로 진안군이외 또는 진안군에 이주한 지 1년 이내인 세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집기간이 완료되면 2월 중 심의를 거쳐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고, 3월 5일부터 입주에 들어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Jeonju Maeil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or various branches and subscription rates.



김종태 에이치건축 대표, 우석대에 1000만원 기부

김종태 (유)건축사사무소 에이치건축 대표가 우석대학교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열린 기금 전달식에는 남천현 총장과 김종태 대표, 김문태 평생교육원장, 송교원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김종태 대표는 "평문사화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석대학교 발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기금을 출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종합농기계, 성금 500만원 기탁

남원시에 새해에도 이웃돕기 성금 기탁이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기운이 전파되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종합농기계(대표 이성욱)에서 따뜻한 세상 만들기 동참하고자 6일 시에 성금 500만원(금오백만원)을 전달했다. 이성욱 대표는 평소에도 지역봉사단체 활동으로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으며, "어려울 때 나눔은 더 의미 있고 뜻 깊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 실천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소방서, 이웃 주민 실외기 화재 발견 초기 진화

진안소방서는 겨울철 3대 전기제품(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 사용 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하고, 실외기 점검을 당부했다. 진안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일요일 진안군노인회 건물 외벽에 부착된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날 아침 교회를 가던 이웃 주민 이권섭 씨(남, 63)는 연기 색깔이 검은색이고 이상을 감지하여 현장으로 가보니 실외기 주변에서 불꽃이 번지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이 씨는 즉각적으로 사무실에 있는 소화기를 가지러 가면서 바로 119에 신고했다. 이씨가 소화기를 가져왔을 때에도 불이 전선 위쪽으로 더 번지고 있던 것을 보았으나 이씨는 머뭇거리지 않고 소화기를 활용해서 초기진화에 성공했다. 다행히 이 씨의 즉각적인 대처로 건물 외벽으로 더 이상 불씨가 번지지 않아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Advertisement for '착한신고' (Good Reporting) campaign. It features a woman covering her face in distress and lists benefits of reporting child abuse, such as protecting the child and preventing further harm. It includes a phone number 112 and a website for reporting.